



영국 손해보험회사의 배당정책과 시사점

이해랑 연구원

■ Lloyd's의 계열사인 Beazley¹⁾와 Catlin²⁾의 배당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음.

- Beazley는 2014년 2월 6일 연차보고에서 2013년 이익의 75%를 특별배당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, 총 배당금은 1억 3천만 파운드로 Beazley 시가 총액의 10% 수준임.
 - Beazley의 특별배당은 2013년 특별배당을 포함하여 7년간 4차례 있었음.
 - Lloyd's 계열의 손해보험 회사 Hiscox 역시 이익의 80%인 총 2억 파운드를 배당하겠다고 발표함.
- Catlin은 특별배당 계획 없이 이익의 50% 내외인 주주배당이 예상되며, 배당 후 유보 이익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함.
 - Lloyd's 계열인 Amlin 역시 Catlin과 마찬가지로 주주배당은 이익의 50%만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■ Beazley의 특별배당이 건전한 경영의 결과이며 시기적절한 분배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새로운 이익창출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함.

- Beazley의 2013년 합산비율(combined ratio)은 84%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ROE는 21%임.
- 현재 영국 재보험시장의 수익성은 경쟁심화와 재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■ Catlin의 수익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신사업 투자를 위해 특별배당을 하지 않기로 함.

1) Beazley PLC(Beazley): 2009년 설립된 Lloyd's 계열의 손해보험 및 재보험 회사.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사업 분야는 상해와 생명, 해상, 정치 위험 및 상금보상보험(Contingency), 재물, 재보험, 특수(Specialty) 보험으로 총 6개로 구분됨. 2013년 수입보험료는 19억 7천만 달러임.

2) Catlin Group Limited(Catlin): 1999년 설립된 Lloyd's 계열사의 손해보험 및 재보험 회사. Beazley와 같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런던/영국, 미국, 버뮤다, 유럽, 아시아-태평양, 캐나다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. 사업분야는 항공, 재물, 특종, 재보험, 에너지/해상, 전쟁 및 정치 위험, 특수 보험으로 구분함. 2013년 수입보험료는 53억 9백만 달러임.

- 2013년 Catlin의 세전이익은 4억 3,200만 달러이며 ROE는 13%임.
- Catlin 수익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창출되었고 미국, 신흥국 등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.
 - 현재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,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고 있음.

■ 두 회사의 배당정책은 손해보험 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.

- 2012년 전세계 보험업의 평균 ROE가 8.0%인 것과 비교해보면 두 회사의 수익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됨.
- 그러나 향후 전망은 상반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전략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등)